

# 아동 및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의 타당화

조혜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권영민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본 연구는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의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DEQ-A)를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함을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452명(여 229명, 남 223명)과 중학교 1, 2학년 474명(여 212명, 남 262명)으로 총 926명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존성요인, 효능감요인, 자기비판요인의 3요인을 추출하였다. 확증적 모델검증을 통하여 타당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3요인의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DI, CES-D-K를 사용하여 DEQ-A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우울과 의존성, 자기비판요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우울과 효능감요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EQ-A가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경우의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우울경험질문지, 우울, 아동청소년, 요인분석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백서(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41.3%, 남자 36.5%, 여자 46.6%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은 50%를 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상당한 수준의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

에 청소년 시기가 우울에 취약한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발달기간임을 말해준다. 즉 청소년기는 의미 있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분(mood)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보편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불쾌한 기분이 청소년의 우울 취약성을 더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rlson & Strober, 1983).

\* 교신저자: 조혜수, E-mail: hye-su@catholic.ac.kr

따라서 우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 시도와 함께 우울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개별적이고 발달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우울연구, 치료나 평가를 하는 임상장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문지형 측정도구로는 한국형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역학조사센터 우울증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조맹제, 김계희, 1993), 한국형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조수철, 이영식, 1990) 등이 있다. K-CBCL은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문제행동들을 부모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우울은 우울/불안척도 내에 속하며, 우울을 단일척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위축, 신체증상과 함께 내면화장애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CES-D는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고한 내용들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상실, 수면장애를 반영하고 있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용으로는 Noh, Avison과 Kasper(1992)가 개정한 한국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가 있다. 마지막으로 C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통하여 현재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우울증 분할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아동청소년의 우울연구나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울평가도구의 공통점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중심으로 우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상은 특정 핵심 증상에서는 성인의 우울증과 다를 바 없다하여 정신장

애진단 및 통계편람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DSM-III,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80)에서부터 성인과 동일한 진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DSM-III-R(1987)에 이르러서는 일부 행동적인 차원에서 아동과 성인이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성마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체중 감소 현상보다는 아동 발달에 맞는 체중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언급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증상변화를 고려한 진단 준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CDI에서 측정하는 우울증상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수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단 도구로서 CDI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Helsel & Madson, 1984). 또한 CDI가 일반적인 병리를 구분해 내는 것인지, 우울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Costello & Angold, 1988)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CDI가 정신과 집단과 비정신과 집단을 변별하는데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연구(Kazdin, Rodger, & Colbus, 1988)도 있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단이나 평가에 있어서 제기되는 타당성의 비일관성 문제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발달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나, 우울 증상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Carlson과 Kashani(1988)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우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우울 측정도구들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DEQ-A, Blatt, Schaffer, et al., 1992)

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울경험질문지(DEQ: 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는 원래 후기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DEQ는 우울시 나타나는 증상 그 자체보다는 ‘우울과 빈번히 관련되는 심리적인 태도’, ‘우울과 관련된 대인관계 경험이나 자신의 활동, 흥미에 대한 느낌’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Cohen, Baker, Gohm, Fromm-Reichman, & Weigert, 1954)의 개관을 통해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특정 이론적 지향을 두지 않고 일상의 경험을 묘사하는 항목 선정에 목표를 두고 최종 66문항을 선택하였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는 점에서 기존 측정도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CDI와 같은 우울증상중심의 평가는 우울한 환자들에게서 관찰이 가능한 임상적 우울증상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서, 지체, 피로, 수면장애, 식욕의 감퇴 등 신체적 불평과 같은 증상의 발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2주간의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 발현되는 각 증상의 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우울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DEQ는 직접적인 우울증상은 아닐지라도 우울과 관련이 있는 넓은 범위의 우울경험을 측정한다. 즉 일상 경험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서상태에서 임상적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 우울의 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DEQ-A에서 측정하는 우울 취약성과 관련된 대인관계에서의 친밀성, 자기정체성, 생산적 능력에 관한 내용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제와도 관련 있다(Blatt & Blass, 1992, 1996; Erikson, 1950).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 ‘기대에 맞추지 못한다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

들은 타인의 평가나 자기가치감 및 유능성에 민감해지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DEQ는 우울을 단순한 증상의 집합이 아니라 정신분석적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상실과 같은 심각한 대인관계의 손상’ 또는 ‘자기가치감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복합적 현상(Arieti & Bemporad, 1978, 1980; Blatt, 1974; Blatt, et al., 1976; Blatt, Quinlan, Chevron, MacDonald, & Zuroff, 1982; Bowlby, 1973, 1988)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DEQ-A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우울경험 평가는 우울에 취약한 대인관계의 패턴이나 자기정의와 관련된 형태들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Q-A를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다양한 증상들로 구성된 우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울 증상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입장이 있다. 곁으로 드러난 증상의 정도에 근거하여 정신병적(psychotic) 대 신경학적(neurotic) 유형(Akiskal, Rosenthal, Rosenthal, Kashgarian, Khani, & Puzaantian, 1979)으로 구분하거나 다른 정신병리와외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일차적(primary), 이차적(secondary) 우울로 구분하였다(Akiskal, et al., 1979; Weissman, Pottenger, Kleber, Ruben, Williams, & Thompson, 1977). 우울시 보이는 활동수준에 따라 초조(agitated) 대 지연(retarded) 유형으로 나누어 전자는 근심, 불면, 죄책감,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고 지연은 신체반응, 언어사용의 감소, 음조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울증상 중심의 우울유형구분은 우울의 하위집단 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이질성때문에 우울연구나 임상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분자체가 인위적일 수 있다

는 비판이 있었다(Woodruff, Murphy, & Herjanic, 1967; Guze, Woodruff, & Clayton, 1971; Weissman, et al., 1977). 반면 우울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울유형을 구분하려는 여러가지 이론적인 입장이 있다. 역동적 입장인 Arieti와 Bemporad(1980)는 중요한 타인(dominant other)과 중요한 목표(dominant goal) 지향의 우울, Bowlby(1980)는 불안정 애착(anxiously attached)과 강박적인 자기의존(compulsively self-reliant) 유형의 우울을 제안했다.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의존성(sociotropic)과 자동적(autonomous) 유형(Beck, 1983)을 제안하였다. 이들 모두는 개인을 우울하게 만드는 기원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우울을 구분하였으며, 대체로 대인관계상의 문제와 관련된 우울과 자기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우울로 구분하고 있다.

Blatt(1974)도 두 가지 우울 경향성을 언급하였다. 의존성(anacletic) 요인은 무력하고 약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향성으로 보았다. 자기비판(introjective) 요인은 열등감과 죄책감, 가치없음을 느끼고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실패를 보상하려고 애쓰는 경향이라 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초기 발달 단계에 기원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전자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인 관계-지향성, 후자는 자기정체감 혹은 자기개념과 같은 자기-규정성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격발달은 이 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둘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이라면 이상적인 발달을 이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달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생활상에서 중요한 상호작용을 잃어버리거나 위협을 받게되면, 의존적인 사람들은 외로움, 무기력, 나약함과 같은 의존적인 형태의 우울을 경험하기 쉬워진다는 것

이다. 반면에 자기비판적 성격유형은 정체감과 자기-자존감의 위협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에 실패하였을 때 죄책감, 수치심, 가치없음이 주도하는 우울형태를 발달시키기 쉽다는 것이다(Blatt & Zuroff, 1992).

DEQ는 이 두가지 유형의 우울을 확인하고 측정하고자 우울과 연관된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Blatt 등(1976)은 DEQ를 남녀 대학생 660명(남학생 160명,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직교회전 방식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개의 요인-의존성, 자기비판성, 효능감-을 추출하였다.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자 표본을 무작위로 반으로 나누어 두 하위표본에서 요인분석을 하고 난 후 요인간의 Tucker 일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요인간의 일치도 계수가 .90이 넘어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DEQ의 의존성요인과 자기비판요인은 다른 우울척도-BDI, SDS, MMPI의 D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효능감요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Blatt, et al., 1982; Welkowitz, Lish, & Bond, 1985; Klien, 1989). 또한 자기비판요인과 의존성요인 점수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의존성은 적대감 표현에 관한 갈등과 관련있고 무력감과 자기비판성 요인은 낮은 자존감 및 죄책감과 연합된다고 하였다(Zuroff, Moskowitz, Powers, & Franko, 1983).

DEQ를 사용한 비임상 집단 대상의 연구는 우울의 두 가지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밝힌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Arieti & Bemporad, 1980; Blatt, 1974). 이후에도 꾸준히 비임상집단에서의 DEQ 요인구조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다(Zuroff, Quinlan, & Blatt, 1990).

Blatt와 Schaffer 등(1992)은 9학년에서 12학년의 여학생 320명과 남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DEQ-A를 실시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DEQ의 3개 요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72에서 .90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1년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의존성 .63과 자기비판 .56 그리고 효능감 .52로 나왔다. 3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의존성 .90 자기비판 .82 효능감 .79로 나와 DEQ-A 구조의 신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DEQ-A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EQ-A와 각기 다른 집단의 CES-DC, CDI, SAS (Sociotropy and Autonomy; 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의존성과 CES-DC는 .50, 자기비판과 CDI는 .51, 의존성과 SAS의 사회성은 .83, 효능감과 자율성은 .55로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DEQ를 수정하여 11~12세부터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경험세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입증한 DEQ-A도 개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Blatt, Hart, Quinlan, Leadbeater, & Auerbach, 1993; Donaldson, Spirito, & Farnett, 2000; Fehon, Grilo, & Martino, 2000; Fichman, Koestner, & Zuroff, 1994; Frank, Poorman, Van Egeren, & Field, 1997; Frank, Van Egeren, Paul, Poorman, Sanford, Williams, & Field, 1997; Greaven, Santor, Thompson, & Zuroff, 2000; Henrich, Kuperminc, Sack, & Blatt, & Leadbeater, 2000; Kuperminc, Blatt, & Leadeater 1997; Kuperminc, Leadeater, & Blatt, 2001; Shahar, Henrich, Blatt, Ryan, & Little, 2003; Wixom, Ludolph, & Westen, 1993).

DEQ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DEQ-A에서 측정하는 의존성 요인은 “거절에 대한 걱정,

상처받고 방어적인 사람들,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화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깝고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얻고자하는 욕구를 측정한다(예, ‘나는 친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같다’). 다음으로 자기비판요인은 “죄책감, 공허감, 무망감, 불만족감, 불안정감; 기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심한 책임감;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양가감정; 비난하려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높은 자기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측정한다(예,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효능감요인은 “목표지향적인 추구하고 개인적 성취느낌”을 서술하고 있는 문항들로 유능감, 자신감, 내적인 힘을 반영(예,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하고 있다(Blatt, et al., 1976; Shahar, et al., 2003).

DEQ-A를 사용한 청소년 표본에서도 우울과 DEQ-A의 의존성, 자기비판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지 CES-DC로 측정된 우울은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는 자기비판보다 의존성이 우울과 더 관련이 있고 시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서는 의존성이 자기비판보다 CDI점수와 더 강력하게 관련되었다(Blatt et al., 1992). DEQ-A 단축형을 사용하여 우울과 두 우울경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Fichman, et al., 1994)에서도 자기비판과 의존성은 청소년의 우울수준(CES-DC)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으며, 자기비판은 의존성보다 우울과 좀 더 강력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이 자기비판보다 우울과 더 강력하게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자는 CES-DC에서 측정하는 우울이 대인간의 의존성 주제보다는 인지, 감정, 자기평가에

속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Reis(1990)는 의존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함과 관련된 어려움을 덜 보고한 결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 외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DEQ-A와 행동문제(Blatt et al., 1993),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Fichman et al., 1994), 학업 성적과의 연관(Shahar, Henrich, Winokur, Blatt, Kuperminc, & Leadbeater, 2006), DEQ-A 요인간 상호작용(Shahar, Gallagher, Blatt, Kuperminc, & Leadbeater, 2004)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의존성과 자기비판 요인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지만 일관적으로 자기비판요인이 우울과 좀 더 강력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Fichman 등(1994)이 지적했듯이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한 가지는 의존성요인 자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Abramson과 Sackheim(1977) 그리고 Blatt(1974)도 우울에 있어 의존성의 중요성은 강조하였으나 우울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에서 간과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Harter(1990) 역시 중요한 사람의 상실에서 오는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기비난적인 특성을 지닌 대부분의 우울과 달리 낮은 자존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이며 임상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10~11세에 10~15%이던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에 40%까지 증가하고(Rutter, 1986), 우울증의 지배적 정서인 슬픔은 중기 아동기에서부터 동일하게 경험한다(Izard & Schwartz, 1986)는 연구결과와 15세의 우울증 발병과 13-15세 사이에 우울증 발병이 급격히 상승한다(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발병이전 연령에서 발병초기 연령, 즉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DEQ-A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용 우울검사(CDI),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와의 상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한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또래에게 인기가 없고 외톨이며(Jacobson, Lahey, & Strauss, 1983), 또래로부터의 낮은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 능력의 결핍, 외로움이 아동청소년 우울증의 중요한 예언 변인(Harter & Marold, 1994)임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우울증과 낮은 자기 가치감 사이의 관계(Harter & Whitesell, 1996)와 종단연구에서 낮은 자긍심이 우울증의 특이한 예언 요인(Lewinsohn, Gotlib, & Seeley, 1997)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동 통제 요인과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의 상관을 확인하여 DEQ-A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일상의 우울관련 경험의 평가를 통하여 임상적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우울에 취약한 초기청소년의 일상경험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 장면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언에 필요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예비 연구

### DEQ-A의 문항 번역 및 수정 절차

본 연구에서 DEQ-A 문항 번안에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다듬는데 중점을 두었다. 1차로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번안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번안된 내용을 3명의 발달심리전공자(박사)가 아동 이해의 적절성 수준을 5점 척도로 체크한 후 적절성이 의심되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3차에는 3명의 발달심리전공자(박사)가 수정한 문항을 서로 교환하여 적절성 수준을 재확인하고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한 후 발달심리학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완성된 질문지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한 후 재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 예비 조사

#### 대상

수정한 DEQ-A와 다른 측정 도구들로 구성된 질문지는 총 139문항으로 문항 제시 순서는 DEQ-A, CDI, CES-D-K, 충동 통제, 사회적 수용과 자기가치감의 순서이다. 완성된 질문지를 지역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5, 6학년 14명(5학년 7명, 6학년 7명)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 방법

실시는 본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25분 정도로 문항 응답시 시간상의 문제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지 응답시 아동들은 첫째 질문지 표시방법을 동그라미로 하는 문제, 둘째 단어의 뜻을 물어보거나 세 번째로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에 표시하는 방법을 재차 확인하였다. 질문지 수거 후 누락 문항을 확인해 보니 전체 아동 14명 중에서 1명 자료는 누락 문항이 많아 자료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다른 1명은 CDI 문항 하나를 누락하였고 5학년 아

동 4명이 CES-D-K에서 한 문항씩 누락하고 1명은 중복 응답하였다. CES-D-K의 26문항을 A4 한 면에 다 넣은 것이 5학년 아동에게 응답에 혼돈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2명의 5학년 아동은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에서 양방향 모두에 응답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 예비조사 결과

따라서 5학년 아동들을 위해 질문지 구성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표 대신에 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CDI의 경우는 ( )에 표시하기 보다는 해당번호에 직접  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ES-D-K의 26문항을 A4 두 면으로 나누어 시각적인 혼돈과 피로감을 줄였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의 양방향 혼돈감을 줄이기 위해  안에 번호를 넣어 해당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진은 새로 수정한 질문지를 또 다른 5학년 아동 2명에게 직접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예비조사시에 나타난 문항 누락이 없었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가치감 척도는 응답 방법을 구두로 간단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질문이 많았던 단어의 뜻은 문항 안에 간단히 설명을 삽입해 넣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질문지 수거 방법을 초등학생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설명한 후 실시하고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 본 연구

####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3개교 5-6학년과 중학교 7개교의 1-2학년으로 총 940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모두 926부이다. 표 1에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례수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48.8%, 51.2%이며 남녀 비율은 52.4%, 47.6%로 유사하다. 연령은 11세부터 16세까지로 평균 13.43세(표준편차 1.23)이다.

**측정도구**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

우울 양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지는 Blatt 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질문지(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토대로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이 44문항을 수정한 전체 66문항을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의 7점 리커트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에는 의존성(Dependency), 자기비판(Self-Criticism), 효능감(Efficacy)이 있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아동용 우울검사(CDI)**

Kovacs과 Beck(1977)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검사지(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였다.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스스로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을 잘 설명해 주는 정도를 3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총점은 0-54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말해준다. 조수철 등(199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 288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CDI의 평균치는 14.7점(표준편차 7.8)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왔다.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

Weissman, Orvaschel과 Padian(1980)의 아동용 역학조사를 위한 우울척도를 번안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 Noh, Avison, & Kasper,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인 목적보다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례 수 분포(%)

성별 \ 학년	초등생		중학생		계
	초등5	초등6	중1	중2	
남	144 (15.6%)	79 (8.5%)	116 (12.5%)	146 (15.8%)	485 (52.4%)
여	132 (14.3%)	97 (10.5%)	75 (8.1%)	137 (14.8%)	441 (47.6%)
계	276 (29.8%)	176 (19%)	191 (20.6%)	283 (30.6%)	
	452(48.8%)		474(51.2%)		926(100%)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1). 내용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를 반영한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Noh 등(1992)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척도:청소년용’에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하였다(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이춘재, 곽금주, 1994). 리커트식 5점 평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왔다.

###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충동통제는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상 검사(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Peterso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이다. 이춘재와 곽금주(1994)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46이다. 문항 내용은 ‘나는 대체로 화를 참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난폭해진다’와 같은 모두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선행 연구(Ebata & Petersen, 1986)에 의하면, 이 척도는 학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나와 다르다’(1점)에서 ‘나와 매우 비슷하다’(6점)까지 리커트식 6점 평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5이다.

### 사회적 수용과 자기 가치감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과 자기가치감(Self-Worth)은 Harter(1985)가 개발한 자기가치감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의 하위유형을 사용하였다. 이춘재와 곽금주(1994)가 번안한 것으로 사회적 수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또래들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얼마나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지,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자신의 지각 정도를 측정한다. 신뢰도 계수는 .58이다. 자기가치감은 현재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신뢰도 계수는 .73이다.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의 Cronbach's  $\alpha$  는 .73이고 자기가치감은 .82이다.

### 연구절차

우선, 초등학교 1개교에서 5-6학년 전체(321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한 후 학교장의 협조를 얻었다. 본 연구진과 5명의 보조인력이 아동의 교실에 직접 들어가 실시 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아동들에게는 요즘 또래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 질문지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결과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소요시간은 학년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5학년의 경우 평균 30분정도가 걸렸으며 6학년의 경우 평균 20분이내에 완성하였다.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 아동들에게는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었다. 질문지 결과는 학급단위로 각 척도의 표준점수를 제공하여 아동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담임교사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수업시간을 피하여 작성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분석방법

DEQ(Blatt, et al., 1976)와 DEQ-A(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의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한 후 직교회전방식을 통하여 3가지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DEQ 표준점수와 요인점수계수(factor score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참가자 개인의 요인점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66문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점상에서의 복잡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Welkowitz, Lish, & Bond, 1985; Flett, Hewitt, Endler, & Bagby,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Blatt et al., 1976; 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와는 다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는 요인분석방법을 공통요인분석으로 최대우도법을 선택하였으며 회전방법은 사각회전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는 요인들이 엄밀히 상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공통요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들을 확증적 모델검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우울경험을 잘 나타내주는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채점의 용이성 및 DEQ-A의 각 요인과 다른 측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간편히 하기 위하여 해당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합산 점수를 요인점수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DEQ-A를 실시한 926명의 자료 중에서 DEQ-A 문항에 성의없이 표시한 자료는 제외하고 총 911명의 자료가 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다(초등학생 442명, 중학생 469명, 여학생 434명, 남학생 477명). 다른 측정치들도 누락 문항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

서 제외하여 측정 척도마다 해당되는 사례수에 차이가 있었다. 사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EQ-A의 적합한 요인구조를 얻어내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집단은 458명(초등학생 223명, 중학생 235명, 여학생 218명, 남학생 240명)이며 집단은 453명(초등학생 219명, 중학생 234명, 여학생 216명, 남학생 237명)이다. 집단의 458명을 대상으로 DEQ-A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공통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선택하고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453명을 대상으로 AMOS 7.0을 사용하여 확증적 모델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DEQ-A의 내적 일치도의 평가를 위해 Cronbach's  $\alpha$ , 반분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공준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DI, CES-D-K, 충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성 측정치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DEQ-A의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 66문항을 공통요인 분석 중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구성개념간의 상관을 고려되어 사각회전(Oblimin)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이 18개 나왔다. 16개가 나온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 (1992)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크리 플롯(그림 1)을 보면 두 개의 요인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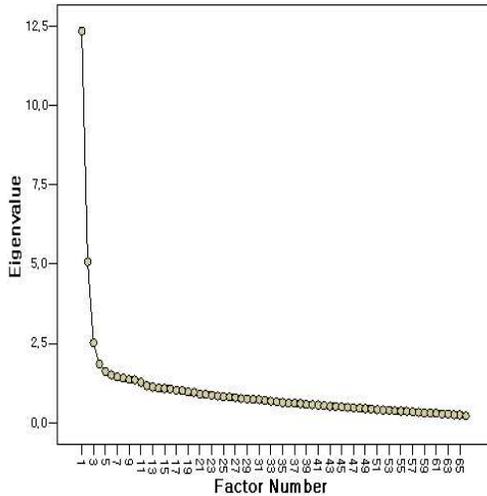


그림 1. scree plot

나면서 설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 번째 요인으로 가면서 그 차이가 현저히 줄고 있다. Blatt 등 (1992)도 세 번째 요인에서 설명량이 4%정도로 떨어지지만 DEQ의 3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번째 요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개 요인을 지정하였다.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행태계수에서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만을 포함시키고 27문항은 제외하였다. 선택된 39문항으로 최대우도법의 요인추출방법과 사각회전으로 요인 3개를 지정하여 회전시켰다.

그 결과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 적절성 측정치는 .929로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Kaiser, 1974).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요인분석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6503.471 (df=741),  $p < .001$ . 각 요인의 고유치 값은 요인1은 10.555, 요인2는 3.625, 요인3은 1.467, 요인4는 1.268, 요인5는 1.220으로 나왔다. 3요인의 총설명

량은 40.121%로 나왔다.

1요인은 의존성요인, 2요인은 효능감 요인, 3요인은 자기비판적 요인으로 명명이 가능하였다. DEQ-A 요인별 요인부하량(행태계수)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2개 문항만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은 .312에서 .804까지 나타났다. 한 개 문항(58번)만 두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유사하게 나왔으나, 문항내용이 요인1에 적합하여 이에 속하게 하였다. 문항 내용이 전반적으로 각 요인에 적합하여 전체 39문항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의존성요인 14문항, 효능감 요인 9문항, 자기비판요인 16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1요인 의존성에 속하는 문항들은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의지하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들이 표현되어 있다(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효능감 요인에는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와 같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감을 표현하는 문항들이 속한다. 자기비판요인에는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기대나 기준에 충족하려는 욕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해당 문항들은 각 요인들에 적합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확증적 모델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DEQ-A 3요인 구조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증적 모델 검증의 대상은 집단2의 453명(초등학생 219명, 중학생 234명; 여학생 216명, 남학생 23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제시함에 있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chi^2$ 검증과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이하 CFI로 표기), 터커-루이스 지수(Tucker & Lewis Index: 이하 TLI로 표기),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이하 GFI로 표기),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하 RMSEA로 표기)를 제시하였다. CFI, TLI, GFI는 .90이상일 때 합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모형이라고 불린다(홍세희, 2000).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1717.677(df=699, p=.000)$ , CFI=.802, TLI=.790, GFI=.832, RMSEA=.057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본 연구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신뢰도

DEQ-A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lpha$ 와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 문항-총점간 상관을 구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문항 총점간 상관은 .44~.74 범위에 속한다. DEQ-A 요인별 내적합치도와 반분신뢰도는 .725~.872에 해당하여 신뢰수준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준거관련 타당도

기존의 아동청소년 우울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CDI, CES-D-K와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 충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감 척도들과 DEQ-A 각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DEQ-A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연구에 사용된 각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DEQ-A의 의존성 요인은 우울 측정 도구인 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35, r=.45, p<.01$ ). 우울관련변인인 충동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28, p<.01$ )을,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36, r=-.29, p<.01$ ). 효능감요인은 CDI, CES-D-K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

표 2. DEQ-A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TLI	GFI	RMSEA
연구모형	1717.677	699	.802	.790	.832	.057

표 3. DEQ-A 3 요인 신뢰도와 문항-총점상관

	요인1 (의존성)	요인2 (효능감)	요인3 (자기비판)
Cronbach- $\alpha$	.870	.725	.863
반분신뢰도	.872	.728	.815
문항-총점 상관	.74~.47	.71~.44	.69~.45

표 4. 측정변인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의존성	효능감	자기 비판	CDI	CES-D-K	총동 통제	자기 가치감
					1	2	3	4	5	6	7
1	453	14~98	58.17	15.21							
2	453	9~63	40.62	8.41	-.00						
3	453	16~112	61.27	16.40	.75**	-.12*					
4	922	0~54	14.02	7.57	.35**	-.50**	.53**				
5	921	26~130	52.78	17.50	.45**	-.40**	.59**	.77**			
6	920	8~48	26.38	6.55	.28**	-.21**	.41**	.43**	.40**		
7	882	6~24	17.07	4.08	-.36**	.48**	-.49**	-.58**	-.54**	-.33**	
8	882	6~24	16.70	3.64	-.29**	.31**	-.36**	-.45**	-.40**	-.23**	.55**

\*  $p < .05$  \*\* $p < .01$

8. 사회적 유능감

다( $r = -.50, r = -.40, p < .01$ ). 우울관련변인인 총동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r = -.21, p < .01$ ), 자기 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48, r = .31, p < .01$ ). 자기비판요인은 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53, r = .59, p < .01$ ). 우울관련변인인 총동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r = .41, p < .01$ ), 자기 가치감, 사회적 유능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 = -.49, r = -.36, p < .01$ ). 우울과의 상관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비판요인이 우울과 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DEQ-A의 3요인은 모두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DEQ-A가 우울 지표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용 우울경험질문지(DEQ-A)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1의 458명을 대상으로 DEQ-A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3요인의 요인구조를 집단2의 453명을 대상으로 확증적 모델검증을 한 결과 3요인 구조가 교차 타당화되었다.

요인1 의존성, 요인2 효능감, 요인3 자기비판의 3요인 구조는 DEQ-A를 사용한 연구들(Blatt, Schaffer, Bers, & Quinlan, 1992; Shahar et al., 2006; Shahar et al., 2004)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비판과 효능감의 순서가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latt, Schaffer, Bers와 Quinlan(1992), Blatt 등(1976)의 연구에서는 의존성-자기비판-효능감의 순서로 나왔다. 대학생 대상의 DEQ 타당화 연구(조재임, 1996)에서는 자기비판-의존성-효능감의 순서로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각 요인의 설명력도 본 연구는 의존성, 효능감, 자기비판이 27.07%, 9.30%, 3.37%로 전체 40.12%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Blatt 등(1992)의

연구에서는 의존성 18.26%, 자기비판 7.79%로 차이를 보인다. 요인순서에서의 차이는 우선 분석방법상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성분 분석으로 직교회전을 하여 전체 66문항을 모두 이용하여 요인계수와 표준점수에 따라 요인 점수를 부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방법으로 사각회전을 하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조재임(1996)은 Blatt 등(1976)과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도 의존성과 자기비판의 순서가 달리 나왔다. 이에 대해 조재임(1996)은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생들의 다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더 성취지향적, 내사적인 성향을 지니며 그에 따른 자기비판, 죄책감 등으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효능감과 자기비판 요인의 순서가 달라진 것은 사회문화적 차이와 발달적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청소년과 한국청소년(12세-18세)의 정체감 발달 비교연구(서봉연, 1979)에서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는 12세의 저연령층에서부터 높은 목표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초기 청소년기의 높은 목표지향성은 자기비판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유능성, 성취감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효능감 요인에 속한 '나는 내가 무슨 일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주변의 관심으로 지각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재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존성, 효능감, 자기

비판의 요인들이 발달과정상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DEQ-A와 적응간 관계연구(Kuperminc, et al, 1997)에서 연구자들은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두 요인간의 점수가 덜 구별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관련있어 보인다. 즉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초기청소년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점점 더 구별되어진다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Fichman 등(1994)의 연구에서 고등학교시기 동안에도 의존성이 U자 패턴의 발달곡선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존성이 연령-관련 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DEQ-A의 3요인이 발달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DEQ-A의 발달적 변화특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을 확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우울경험과 연령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DEQ-A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다른 우울 측정치(CDI, CES-D-K)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 (Blatt, et al., 1982; Welkowitz, et al., 1985; Klien, 1989). 또한 의존성보다는 자기비판이 우울과 상관이 더 높게 나와 기존의 연구들(Blatt et al, 1992; Fichman et al., 1994; Shahar et al., 2006; Shahar et al., 2004)과 일치하여 자기비판 요인이 우울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12세 때의 자기비판이 이후 30세까지의 학교생활, 교육기간, 직업 선택 등 발달의 전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Zuroff & Koestner, 1994) 우울과 자기비판 요인과의 관련성을 발달적인 맥락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의존성이 우울(CES-DC)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CDI와 .35, CES-D-K 와는 .45의 상관으로 나와 비교적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우울측정도구들이 대인관계 영역을 재고 있지 않다는 Fichman 등(1994)의 설명과 부합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이 정신병리를 예견하며 효능감은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효능감이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40~- .50)을 보이고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유능감과는 .31~.48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비판과 효능감이 여성의 우울 경험여부를 구별해 준다는 연구결과(Altman & Wittenborn, 198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울할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높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 기대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생각,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양가감정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상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반복하여 경험하는 의존적인 대인관계 패턴들, 채워지지 않는 지지받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부족한 성공경험 등의 누적된 경험이 우울증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상하지 않은 발견은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는 다르게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즉 효능감 증진이 우울수준을 낮추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hahar 등(2004)의 연구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의 상호작용에서 효능감이 매개하여 우울과 내면화 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 의존성, 자기비판요인과 효능감요인은 모두 우울과 유

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DEQ-A가 우울 측정의 타당한 질문지임이 확인되었다.

우울과 관련있는 변인인 충동통제,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성과의 상관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요인은 충동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유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관련성이 아주 높지 않았다. 효능감 요인은 충동통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자기가치감, 사회적 유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이 역시 높은 수준의 관련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 자기비판적인 의식이 많고 효능감이 저하되어 있으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하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과 자신에 대해 가치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래들에게도 인기없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예언요인으로 지각된 사회적 능력 결핍(Harter & Marold, 1994), 빈약한 사회적 자기개념(Altman & Gotlib, 1988)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DEQ-A의 각 요인들은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가 .73~.87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DEQ-A의 의존성 요인, 자기비판요인과 CDI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DEQ-A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청소년의 임상적인 우울만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DEQ-A의 3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3요인들의 내용이 청소년의 발달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는데 DEQ-A의 요인별 분석이 유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반복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경험평가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자기보고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과의 직접적인 면접이나 심리평가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또래친구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 이를 함께 고려한 차후의 연구를 통해 DEQ-A의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특히 집단 2에서 CDI 점수가 20점 이상인 아동이 21.63%로 나왔다. 이들의 DEQ-A 3요인 점수를 CDI 19점 이하 아동들과 비교해본 결과 DEQ-A 3요인 점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DI와 DEQ-A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동들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자기비판요인에서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많다',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효능감요인에서는 '나는 때때로 특별하다고 느낀다',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다', 의존성요인에서는 '말다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매우 신경쓴다'와 같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DEQ-A의 요인 내용에 근거하여 아동과의 직접 면접으로 추가의 정보들을 얻는다면 일상의 우울관련 경험들을 통한 우울평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DEQ-A의 타당성을 반복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집단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결과해석과 적용 대상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임상집단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밝혀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경험에 있어서 성과 연령에

다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성과 연령에 적합한 DEQ-A요인구조를 탐색, 비교 연구하여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표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문은영 (1993).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 서봉연 (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제2집.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의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재, 곽금주 (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 Abramson, L. Y., & Sackheim, H. A. (1977). A paradox in depression: Uncontrollability and self-blame. *Psychological Bulletin*, *84*, 838-851.
- Akiskal, H. S., Rosenthal, R. H., Rosenthal, T. L., Kashgarian, M. Khani, J. K., & Puzantian, V. R. (1979). Differentiation of primary affective illness from situational, symptomatic and secondary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635-643.
- Altman, E. O., & Gotlib, I. H. (1988). The social behavior of depressed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29-44.
- Altman, J. H., & Wittenborn, J. R. (1980). Depression-prone personality in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303-308.
-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Washington, DC.
- Arieti, S., & Bemporad, J. R. (1978). Severe and mild depression: *The therapeutic approach*. New York: Basic Books.
- Arieti, S., & Bemporad, J. R. (1980).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60-1365.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265-290. New York : Raven.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4*, 107-157.
- Blatt, S. J., & Blass, R. B. (1992).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imary dimensions in personality development,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In J. Barron, M. Eagle, & D. Wolitsky (Eds.), *The interface between psychoanalysis and psychology* (pp. 399-4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 Blass, R. (1996). Relatedness and self definition: A dialectic model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G. Noam & K. W. Fischer (Eds.), *Development and vulnerabilities in close relationships* (pp. 309-33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latt, S. J., Hart, B., Quinlan, D. M., Leadbeater, B. J., & Auerbach, J. (1993). Interpersonal and self-critical dysphoria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253-269.
- Blatt, S. J., Quinlan, D. M., Chevron, E. S.,

- MacDonald, C., & Zuroff, D.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 Blatt, S. J., Schaffer, C. E., Bers, S. A., & Quinlan, D. M. (199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pression Experienc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1), 82-98.
- Blatt, S. J., & Zuroff, D.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ume 3: *Loss, separation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Kegan Paul.
- Carlson, G. A., & Kashani, J. H. (1988). Phenomenology of Major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Analysis of Thre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222-1225.
- Carlson, G. A., & Strober, M. (1983). Affective disorders in adolescence. In Cantwell, D. P., and Carlson, G. A.(eds.), *Affective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Update*. Spectrum, New York.
- Cohen, M. B., Baker, G., Gohen, R. A., Fromm-Reichman, F., & Weigert, E. (1954). An intensive study of twelve cases of manic depressive psychosis. *Psychiatry, 17*, 103-137.
- Costello, E. J., & Angold, A. (1988). Scales to assess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hecklist, screens, and ne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726-737.
- Donaldson, D., Spirito, A., & Farnett, E. (2000).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cognitions in understanding the hopelessness experienced by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1*, 99-111.
- Ebata, A. T., & Petersen, A. C. (1986). Patterns of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chievement.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hon, D. C., Grilo, C. M., & Martino, S. A. (2000). Comparison of dependent and self-critically depressed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93-106.
- Fichman, L., Koestner, R., & Zuroff, D. C. (1994). Depressive styles in adolescence: Assessment, relation to social functioning, and developmental tr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315-330.
- Flett, G. L., Hewitt, P. L., Endler, N. S., & Bagby, R. M. (199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personality factors in

- dep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9, 309-350.
- Frank, S. J., Poorman, M. O., Van Egeren, L. A., & Field, D. T. (1997).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mong adolescent inpatients with depressive preoccupations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205 - 215.
- Frank, S. J., Van Egeren, L. A., Paul, J. S., Poorman, M. O., Sanford, K., Williams, O. B., & Field, D. T. (1997). Measuring self-critical and interpersonal preoccupations in an adolescent inpatient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185 - 195.
- Greaven, S. H., Santor, D. A., Thompson, R., & Zuroff, D. C. (2000). Adolescent self-handicapping, depressive affect,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631 - 646.
- Guze, S. B., Woodruff, R. A., & Clayton, P. (1971). Preliminary communication secondary affective disorder: A Study of 95 cases. *Psychological Medicine*, 1, 426-428.
- Harter, S. (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Eds.), *Competence considered* (pp.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 Marold, D. B.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In G. G. Noam & S. Borst(Eds.), *Children, youth, and suicide Developmental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761-777.
- Helsel, W. J., & Madson, J. L. (1984). The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hild Depression Inventory(CDI).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2, 289-298.
- Henrich, C. C., Kuperminc, G. P., Sack, A., Blatt, S. J., & Leadbeater, B. J. (2000).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 groups: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clique and nonclique memb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15 - 26.
- Izard, C. E., & Schwartz, G. M. (1986). Patterns of emotion in depression.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rospectives*, New York: Guilford.
- Jacobson, R. H., Lahey, B. B., & Strauss, C. C. (1983). Correlates of depressed mood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29-40.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azdin, A. E., Rodger, A., & Colbus, D. (1988). The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 validity.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46, 305-315.
- Klien, D. N. (1989).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A further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4), 703-715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 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terbrandt and A. Raskin (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New York: Raven.
- Kuperminc, G. P., Blatt, S. J., & Leadbeater, B. J. (1997). Relatedness, self-definition, and early adolescent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301-320.
- Kuperminc, G. P., Leadbeater, B. J., & Blatt, S. J. (2001). School social climat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 141 - 159.
- Lewinsohn, P. M., Clarke, G. N., Seeley, J. R., & Rohde, P. (1994). Major depression in community adolescents: Age at onset, episode duration, and time to recur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809-818.
- Lewinsohn, P. M., Gotllb, I. H., & Seeley, J. R. (1997). Depression 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65-375.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Peterso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93-111.
- Reis, H. T. (1990). The role of intimacy in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9, 15-30.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and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3-32). New York: Guildford.
- Shahar, G., Gallagher, E. F., Blatt, S. J., Kuperminc, G. P., & Leadbeater, B. J. (2004). An interactive-synergetic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llustration using the adolescent version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6), 605-625.
- Shahar, G., Henrich, C. C., Blatt, S. J., Ryan, R., & Little, T. D. (2003). Interpersonal - relatedness, self-definition, and their motivational underpinning during adolescence: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470-483.
- Shahar, G., Henrich, C. C., Winokur, A., Blatt, S. J., Kuperminc, G. P., & Leadbeater, B. J. (2006). Self-criticism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teract to predict middle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147-155.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 (1980). Children's symptoms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736-740.
- Weissman, M. M., Pottenger, M., Kleber, H., Ruben, H. I., Williams, D., & Thompson, W. D. (1977). Symptom patterns in primary and secondary depression: A comparison of primary depressives with depressed opiate addicts, alcoholics and schizophrenic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854-862.
- Welkowitz, J., Lish, J. D., & Bond, N. (1985).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89-93.
- Wixom, J., Ludolph, P., & Westen, D. (1993). The quality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172-1177.
- Woodruff, R. A., Murphy, G. E., & Herjanic, M. (1967). The nature of history of affective disorders: I. Symptoms of 72 patients at the time of index hospital admission.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5, 255-263.
- Zuroff, D. C., & Koestner, R. (1994). Self-Criticism at Age 12: A Longitudinal Study of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367-385.
- Zuroff, D. C., Moskowitz, D. S., Powers, T. A., & Franko, D. L.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scal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226-241.
- Zuroff, D. C., Quinlan, D. M., & Blatt, S. J. (199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65-72.

---

1차 원고 접수: 2009. 07.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8. 16.

게재 여부 결정: 2009. 08. 17.

## Validation of the DEQ-A

**Hye-Su Jo**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ng-Min Kwon**  
Seoul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for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of Blatt, Schaffer, Bers and Quinlan (1992)'s Depression Experiences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DEQ-A) for Korean adolescents. The DEQ-A administered to 452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 and 474 students in 7th and 8th grade in school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avored the Dependency, Efficacy and Self-Criticism factors structure of the DEQ-A.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av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DEQ-A. The reliability of the 3 factors has been proved and we have analyzed the correlation of the 3 factors and CDI, CES-D-K. As a result,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sures of CDI, CES-D-K, but 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DI, CES-D-K. Finally, It is discussed about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DEQ-A if it were to be used on national adolescents.

*Keywords: DEQ-A, depression, child-adolescent, factor analysis*

부록: DEQ-A 요인부하량(형태계수)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5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진다.	.804		
55 말다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진다.	.682		
19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두려워진다.	.654		
9 친구들과 관계가 달라지면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하다.	.611		
2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내색이 있는지 늘 신경 써서 살핀다.	.601		
26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매우 신경 쓴다.	.591		
37 주변상황이 달라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581		
40 나는 대체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신경 써서 살핀다.	.524		
20 만약 아주 친한 친구를 잃는다면, 나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468		
56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신경쓴다.	.460		
45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그들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	.459		
23 나는 친한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404		
51 나는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370		
58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내 감정은 자주 바뀐다. 어떤 때는 굉장히 화가 났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한다.	.240		215
62 나는 내 자신과 내가 해낸 일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613		
60 나는 때때로 내가 '특별하다'고 느낀다.	.606		
33 내 안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다.	.588		
15 나는 내가 무슨 일이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517		
8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465		
61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다.	.464		
24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	.461		
32 나는 내 일을 체쳐두고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돕거나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384		
54 남들에게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공부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364		
30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가 많다.			.666
10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650
43 나는 죄책감(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낌)을 자주 느낀다.			.615
11 나는 무기력(무엇을 할 기운이나 힘이 없는 기분)할 때가 많다.			.586
7 내가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자주 있다.			.561
2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521
41 나는 내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518
46 나의 분노(화) 때문에 두렵다			.510
44 나는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01
36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나쁘게 느껴지기도 한다.			.463
13 지금의 나와 내가 바라는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459
4 어떤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444
16 나는 가끔 외롭고 슬프다.			.367
17 나는 대체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306
59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312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정말로 바란다.			.269
	고유치 10.56	3.63	1.45
	설명변량 % 27.07	9.30	3.76